

2026학년도 10월 고1 국어 변형 · (나)보석 1 (다)얼굴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학적 표현에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에는 공간이나 시간이 비현실적으로 재구성되거나 시적 대상이 비현실적 변화를 겪는 상황이 형상화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시적 형상화 과정에서 서로 대비되는 시어나 시구가 연결되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기도 한다. 이때 시적 의미를 형성하는 다양한 표현은 화자의 인식과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주제를 구현한다.

(나)

화석 속엔 한 마리
새가 난다.

결코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는 새.
내가 흘린 눈물도
취라기 지층 어느 하늘 아래
하나의 보석으로 반짝거릴까,
가령 죽음이라든가,
죽음 앞에서 초롱초롱 빛나던 눈.

스스로 불에 타서 소멸을 선택하는
지상의 별들이여
묻혀라 화석에.

영원히 죽는 것은 이미
죽음이 아니다.

-오세영, 「보석 1」-

(다)

눈이 피곤하고 침침하여 두 손으로 잠시 얼굴을 가렸다
손으로 덮은 얼굴은 어두웠고 곧 어둠이 손에 배자
손바닥 가득 해골이 만져졌다

[A]

내 손은 신기한 것을 감지한 듯 그 뼈를 더듬었다
한꺼번에 만져버리면 무엇인가 놓쳐버릴 것 같아
아까워하며 조금씩 조금씩 더듬어나갔다

차갑고 무뎡뎡하고 무엇에도 무관심한 그 물체를
내 얼굴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음직한 그 튼튼한 폐허를

해골의 껍데기에 붙어서

생글거리고 눈물 흘리고 찡그리며 표정을 만들던 얼굴이여
마음처럼 얇디얇은 얼굴이여

자는 일 없이 생각하는 일 없이 슬퍼하는 일 없이

내 해골은 늘 너를 보고 있네

잠시 동안만 피다 지는 얼굴을

얼굴 뒤로 뺀어 있는

얼굴의 기억이 지워진 뒤에도 한참이나 뺀어 있는 긴 시간을선

글라스만한 구멍 뚫린 크고 검은 눈으로 보고 있네

한참 뒤에 나는 해골을 더듬던 손을 풀었다

순식간에 햇빛은 살로 변하여 내 해골을 덮더니

곧 얼굴이 되었다

오랫동안 없어졌다가 갑자기 뒤집어쓴 얼굴이 어색하여

나는 한동안 눈을 깜박거렸다 겨우 ㉠ 눈동자를 되찾아

서둘러 ㉡ 서류 속의 ㉢ 숫자에 ㉣ 초점을 맞추기 ㉤ 시작했다

-김기택, 「얼굴」-

01

〈보기〉를 참고하여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에서 '결말'은 작품의 주제 의식이 최종적으로 집약되는 지점이다. (나)의 결말은 소멸의 과정을 거쳐 도달한 영원성이라는 역설적 가치를 제시하며 존재의 본질을 규명한다. 반면 (다)의 결말은 비일상적 체험을 거친 화자가 다시 일상의 질서로 복귀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때 일상은 화자가 잠시 목격했던 본질적 자아(해골)와는 대조되는, 유한하고 가변적인 표피적 삶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 ① (나)에서 '영원히 죽는 것'이 '죽음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소멸을 통해 영원한 가치로 승화된 존재의 본질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겠군.
- ② (다)에서 '서둘러 서류 속의 숫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은, 본질적 자아에 대한 성찰을 뒤로하고 현실적 삶의 질서에 순응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③ (나)의 '화석'과 (다)의 '해골'은 모두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 각각 소멸을 거쳐 도달한 영원성과 본질적 자아를 드러내는 소재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지상의 별들'이 '화석'에 묻히는 상황은 소멸을 통한 영원의 획득을, (다)의 '햇빛'이 '살'로 변하는 상황은 본질적 자아에서 일상적 자아로의 회복을 의미하겠군.
- ⑤ (다)의 화자가 '뒤집어쓴 얼굴'이 어색해하며 '눈을 깜박거린 것'은, 일상의 공간인 '서류 속'이 본질적 자아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 공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겠군.

02

(다)의 화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인식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의 권태를 극복하기 위해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시도하며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 한다.
- ② 가변적인 외양에 가려진 존재의 본질적 충위를 발견하고 그 지속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려 한다.
- ③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자아의 다중성을 인정하고 타인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려 한다.
- ④ 과거의 기억이 소멸해가는 과정에 주목하여 상실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의 가치를 탐구하려 한다.
- ⑤ 육체적 한계를 초월한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며 현실의 고난을 관조적인 자세로 수용하려 한다.

03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서 '화석 속'에 '새가 난다'고 표현한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② (나)에서 '눈물'이 '보석'으로 반짝거리는 상황을 설정한 것은, 비현실적 변화를 통해 슬픔이라는 감정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것이겠군.
- ③ (다)에서 '손바닥 가득 해골이 만져졌다'는 것은, 시적 대상이 비현실적 변화를 겪음으로써 일상적 감각이 전복되는 상황을 제시한 것이겠군.
- ④ (다)에서 '햇빛'이 '살'로 변하여 해골을 덮는 과정은, 비현실적 재구성을 통해 화자가 다시 현실의 자아로 복귀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⑤ (나)의 '영원히 죽는 것'과 (다)의 '튼튼한 폐허'는 모두 대비되는 시어를 연결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부정하고 하나의 절대적 의미만을 강조하는 것이겠군.

04

(다)의 [A] 부분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체적 피로감이라는 일상적 감각이 내면의 본질을 탐색하게 되는 촉매제로 작용하며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 ② 어둠이라는 시각적 배경이 화자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외부 세계로부터 도피하려는 의지를 강화하고 있다.
- ③ '아까워하며' 더듬는 행위는 화자가 자신의 과거 기억을 복원하려는 집요한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 ④ '한꺼번에 만져버리면' 안 된다는 인식은 대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찰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이다.
- ⑤ '해골'이라는 구체적 형상을 통해 화자는 육체적 노화에 대한 거부감과 생명 연장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05

(다)의 '해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얼굴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음직한' 존재로, 현상적인 자아보다 근원적인 충위의 자아를 의미한다.
- ② '차갑고 무뎡뎡하고 무엇에도 무관심한' 속성을 지니며, 감정에 휘둘리는 표피적 자아와 대조된다.
- ③ '얼굴의 기억이 지워진 뒤에도' 지속되는 존재로, 시간의 유한성을 극복한 존재의 영속성을 상징한다.
- ④ '선글라스만한 구멍'을 통해 화자를 보고 있는 주체로 설정되어, 화자가 자신을 객관화하여 응시하게 한다.
- ⑤ '햇빛'에 의해 '살'로 덮이는 과정을 통해, 화자가 지향해야 할 최종적이고 완성된 인간상을 상징한다.

06

(나)의 '화석'과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석'은 생명력이 박제된 정지된 공간이며, '보석'은 그 안에서 소멸해가는 가변적 존재를 상징한다.
- ② '화석'은 유한한 삶이 영원성을 획득하는 매개체이며, '보석'은 고통의 산물인 눈물이 승화된 결정체이다.
- ③ '화석'은 과거의 죽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흔적이며, '보석'은 현재의 욕망이 투영된 세속적 가치를 의미한다.
- ④ '화석'은 지상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새의 감옥이며, '보석'은 죽음의 공포를 은폐하기 위한 장식적 도구이다.
- ⑤ '화석'은 스스로 소멸을 선택한 자들의 안식처이며, '보석'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 가공된 타율적 존재를 뜻한다.

07

(나)와 (다)의 공통적인 사상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자연 현상에서 보편적인 삶의 원리를 도출하며 사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심리를 서술하여 입체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역설적 상황이나 비현실적 설정을 통해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외부 대상에 대한 관찰에서 내면의 고백으로 이행하며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상실된 가치에 대한 그리움과 복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0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해골의 '검은 눈'과 대비되는 것으로, 현실을 지각하고 분별하는 일상적 감각의 회복을 의미한다.
- ② ㉡: 화자가 복귀한 삶의 현장을 상징하며, 본질적 성찰이 허용되지 않는 규격화된 공간을 암시한다.
- ③ ㉢: 추상적이고 본질적인 가치와 대조되는, 계산 가능하고 세속적인 현실의 질서를 상징한다.
- ④ ㉣: 해골을 응시하던 시선에서 벗어나, 당면한 과업에 집중하려는 화자의 의지적 노력을 보여준다.
- ⑤ ㉤: 일상의 허구성을 깨달은 화자가 새로운 본질적 삶을 개척하기 위해 내딛는 첫걸음을 의미한다.

09

(다)의 화자가 '해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죽음의 징후를 발견하고 이를 부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 ②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며 그 실체를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있다.
- ③ 육체적 소멸 이후에 남겨질 허무함을 직시하고 삶의 무의미함을 냉소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 ④ 겉모습과 내면의 불일치에서 오는 괴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위적인 표정을 짓고 있다.
- 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해골의 시선을 통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10

(나)와 (다)를 통해 두 시인이 공통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존재의 유한성을 수용하고 현재의 삶이 주는 즐거움에 충실해야 한다.
- ②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불변의 본질을 응시해야 한다.
- ③ 죽음이라는 필연적 운명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끝까지 수호해야 한다.
- ④ 문명화된 사회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자연 그대로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
- ⑤ 자아의 내면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타인과의 진실한 소통에 힘써야 한다.

11

(나)와 (다)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화자는 죽음 앞에서 빛나던 눈을 보며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사유하고 있다.
- ② (나)의 '지상의 별들'은 스스로 소멸을 선택함으로써 화석이라는 영원의 공간에 진입한다.
- ③ (다)의 화자는 자신의 얼굴이 생기기 전부터 해골이 존재해왔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 ④ (다)의 해골은 얼굴의 기억이 사라진 후에도 지속되는 긴 시간을 응시하는 주체이다.
- ⑤ (다)의 화자는 해골을 더듬는 동안 일상의 서류 작업이 주는 피로를 완전히 잊고 환희를 느낀다.

12

(가)의 관점에서 (나)와 (다)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새'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은 공간의 비현실적 재구성을 통해 화자의 고립감을 심화하는 장치이다.
- ② (다)의 '해골'이 화자를 보고 있는 것은 시적 대상의 비현실적 변화를 통해 자아 성찰의 주객 전도를 형상화한 것이다.
- ③ (나)의 '눈물'과 (다)의 '눈물'은 모두 대비되는 시어와 연결되어 현실의 고통을 부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④ (나)의 '화석'과 (다)의 '얼굴'은 시간이 비현실적으로 재구성된 공간으로, 화자의 과거 회상을 돕는 매개체이다.
- ⑤ (나)와 (다) 모두 현실에서 가능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독자에게 공포와 경악의 감정을 유발하고 있다.

13

(다)의 '튼튼한 폐허'에 담긴 역설적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육체적 노화로 인해 무너져가는 자아의 비극적 운명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일시적인 삶의 흔적들이 쌓여 만들어진 견고한 역사적 기록을 의미한다.
- ③ 생명력이 사라진 죽음의 형상이지만 그 안에 깃든 본질의 영구성을 상징한다.
- ④ 현실의 고난을 견뎌낸 강인한 정신력이 외면의 초라함과 대비되고 있다.
- ⑤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이 가져오는 정신적 황폐함과 그 견고함을 풍자한다.

14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숫자를 만지다 보면 내 손가락도 딱딱한 숫자가 되어가는 것 같다. 퇴근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선 타인의 그것처럼 무표정하고 건조하다. 나는 문득 내 가슴 속에 박힌 차가운 기계 부속품들을 느낀다. 그것들은 쉽 없이 돌아가며 나를 일상의 궤도에 묶어두고 있다.

- ① (다)의 '서류 속의 숫자'와 <보기>의 '딱딱한 숫자'는 모두 화자의 인간성을 마모시키는 일상의 질서를 상징하는군.
- ② (다)의 '뒤집어쓴 얼굴'과 <보기>의 '낯선 타인의 얼굴'은 진정한 자아와 분리된 소외된 자아의 모습을 보여주는군.
- ③ (다)의 '해골'이 '튼튼한 폐허'인 것과 달리, <보기>의 '기계 부속품'은 화자를 일상에 구속하는 부정적 기제로 작용하는군.
- ④ (다)의 화자가 '눈동자를 되찾는' 행위와 <보기>의 화자가 '부속품을 느끼는' 행위는 모두 본질적 자아로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군.
- ⑤ (다)와 <보기> 모두 현대인의 일상적 삶이 지닌 비인간적이고 기계적인 속성을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군.

15

(나)와 (다)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가 도달한 인식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대화체를 활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빈번하게 사용하여 시적 상황에 생동감과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시키며 대상의 세부적인 특징을 묘사하고 있다.
- ⑤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감정을 이입함으로써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01 종합적 감상

정답: ⑤ (다)의 화자가 '뒤집어쓴 얼굴'이 어색해하며 '눈을 깜박거린 것'은, 일상의 공간인 '서류 속'이 본질적 자아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이상적 공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겠군.

[출제의도]

작품의 결말이 지닌 주제 의식과 공간의 의미를 <보기>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⑤ (다)의 결말에서 화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며 느끼는 '어색함'은 비밀상적 성찰(해골)과 일상적 삶(얼굴) 사이의 간극에서 기인한 것이다. <보기>에서 일상은 '유한하고 가변적인 표피적 삶의 공간'으로 정의되었으므로, 이를 본질적 자아를 실현하는 '이상적 공간'으로 인식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결말의 역설적 표현을 통해 소멸이 곧 영원이라는 주제 의식을 정확히 포착했다.
 ② '서류'와 '숫자'는 화자가 복귀한 일상의 질서를 상징하며, 이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는 현실 순응적 태도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화석은 소멸한 것이 묻혀 영원성을 얻는 공간이고, (다)의 해골은 '얼굴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음직함', '얼굴의 기억이 지워진 뒤에도' 남은 본질적 자아이다.
 ④ (나)의 화석화 과정과 (다)의 일상 복귀 과정을 각각의 주제 의식에 비추어 적절하게 해석하였다.

02 화자의 태도 및 인식

정답: ② 가변적인 외양에 가려진 존재의 본질적 충위를 발견하고 그 지속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려 한다.

[출제의도]

(다) 지문 전체의 흐름을 통해 화자가 도달한 주제 의식과 태도를 추상적 어휘로 구별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정답 풀이]

- ② (다)의 화자는 '얼굴'이라는 가변적 외양 아래에 있는 '해골'이라는 본질적 존재를 발견한다. 특히 결말 직전 '얼굴의 기억이 지워진 뒤에도 한참이나 뻗어 있는 긴 시간'을 응시하는 행위는 존재의 지속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외부 세계와의 단절'은 해골을 만지는 순간의 일시적 상황일 뿐, 화자의 궁극적 지향점은 일상으로의 복귀를 포함한 성찰이다.
 ③ '타인과의 조화로운 공존'은 지문에서 도출할 수 없는 외부적 가치이다.
 ④ '상실감 극복'이나 '미래의 가치 탐구'는 존재의 본질을 응시하는 지문의 핵심 논지와 거리가 멀다.
 ⑤ '현실의 고난 수용'은 지문의 '서류 속 숫자'와 연결될 수 있으나, 화자가 지향하는 궁극적 인식은 '해골'을 통한 본질 발견에 있다.

03 표현상 특징

정답: ⑤ (나)의 '영원히 죽는 것'과 (다)의 '튼튼한 폐허'는 모두 대비되는 시어를 연결하여 대상의 양면성을 부정하고 하나의 절대적 의미만을 강조하는 것이겠군.

[출제의도]

(가)에서 제시된 문학적 표현의 원리가 실제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특히 '대비되는 시어의 연결'과 '새로운 의미 부여'의 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⑤ (가)에 따르면 대비되는 시어의 연결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이다. (나)의 '죽음'과 '아님'의 결합, (다)의 '튼튼한'과 '폐허'의 결합은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이 지닌 복합적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지, 양면성을 부정하거나 하나의 절대적 의미로 수렴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 ① '화석'과 '비행'이라는 모순된 상황의 재구성 (가)의 원리로 적절히 설명했다.
 ② '눈물'이 '보석'이 되는 비현실적 변화를 통해 가치 부여의 과정을 설명했다.
 ③ 얼굴을 가린 손에서 해골이 느껴지는 것은 일상적 감각을 비현실적으로 재구성한 사례이다.
 ④ 추상적/자연적 대상인 '햇빛'이 '살'이라는 구체적 육체로 변하는 비현실적 설정을 통해 현실 복귀를 형상화했다.

04 시적 상황의 전개

정답: ① 신체적 피로감이라는 일상적 감각이 내면의 본질을 탐색하게 되는 촉매제로 작용하며 시상이 전환되고 있다.

[출제의도]

[A] 구간에 나타난 시적 상황의 인과관계와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① 화자는 '눈이 피곤하고 침침하여' 얼굴을 가리는 일상적 행위에서 시작하여, 손에 배어든 어둠을 통해 '해골'이라는 본질적 존재를 만지는 비밀상적 성찰로 나아간다. 즉, 신체적 피로가 성찰의 계기(촉매제)가 되어 시상이 일상에서 비밀상으로 전환된다.

[오답 풀이]

- ② 어둠은 성찰의 공간을 마련하는 장치일 뿐, 불안감을 증폭시키거나 도피 의지를 강화하는 요소가 아니다.
 ③ '더듬는 행위'는 해골(본질)에 대한 탐색이지, 과거 기억의 복원과는 무관하다.
 ④ '아까워하며'는 대상(해골)에 대한 경이로움과 소중함 때문이지,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⑤ 해골은 본질적 자아를 상징하며, 노화에 대한 거부감이나 생명 연장 욕구와는 거리가 멀다.

05 시어의 문맥적 의미

정답: ⑤ '햇빛'에 의해 '살'로 덮이는 과정을 통해, 화자가 지향해야 할 최종적이고 완성된 인간상을 상징한다.

[출제의도]

(다)의 핵심 시어인 '해골'의 속성과 기능을 지문 내의 여러 서술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⑤ 해골이 '살'로 덮여 '얼굴'이 되는 과정은 성찰의 시간이 끝나고 다시 일상(표피적 자아)으로 복귀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해골이 살로 덮인 상태를 '최종적이고 완성된 인간상'으로 보는 것은 지문의 맥락과 어긋난다. 완성된 인간상이라기보다 오히려 본질이 가려진 일상적 상태로의 회귀이다.

[오답 풀이]

- ① '얼굴 전부터 있었다'는 서술을 통해 근원적 성격을 적절히 도출했다.
 ② '무관심한 물체'라는 서술은 일시적 감정(생글거림, 눈물 등)을 만드는 얼굴과 대조되는 속성이다.
 ③ '기억이 지워진 뒤에도 뻗어 있는 긴 시간'은 해골의 영속적 가치를 의미한다.
 ④ 해골이 화자를 '보고 있네'라는 표현은 자아 성찰의 객관적 시선을 형상화한 것이다.

06 소재의 상징적 의미

정답: ② '화석'은 유한한 삶이 영원성을 획득하는 매개체이며, '보석'은 고통의 산물인 눈물이 승화된 결정체이다.

[출제의도]

(나)에 등장하는 핵심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작품의 주제 의식인 '영원성'과 '승화'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② (나)에서 '화석'은 죽음을 '영원히 죽는 것'으로 바꾸어 죽음이 아닌 상태(영원)로 만드는 공간이다. 또한 '눈물'이 '보석'으로 반짝인다는 표현은 개인적 슬픔이나 고통이 영원한 가치로 승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① '화석'을 단순히 '정지된 공간'으로 보는 것은 영원한 생명력(새가 난다)을 간과한 것이며, '보석'을 '소멸해가는 존재'로 보는 것은 본문의 '반짝거릴까'와 모순된다.
 ③ '세속적 가치'는 보석의 일반적 의미일 뿐, 시적 문맥에서는 영원한 가치를 뜻한다.
 ④ '감옥'이나 '은폐'는 작품의 긍정적 승화 어조와 일치하지 않는다.
 ⑤ '안식처'는 가능하나, '타율적 존재'는 본문의 '스스로 소멸을 선택'하는 주체적 어조와 맞지 않는다.

07 사상 전개 방식

정답: ③ 역설적 상황이나 비현실적 설정을 통해 존재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출제의도]

두 작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시적 장치와 그것이 주제 형성에 기여하는 방식을 통합적으로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나)는 '화석 속에서 새가 난다'는 역설적 상황을 통해 영원성을, (다)는 '얼굴 아래 해골을 만진다'는 비현실적 설정을 통해 존재의 본질을 성찰하고 있다. 이는 (가)에서 설명한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황의 재구성'과 일맥상통한다.

[오답 풀이]

- ① (나)는 가능하나 (다)는 자연 현상보다는 신체적 감각과 일상적 사물(서류)에 집중한다.
 ② 두 작품 모두 공간의 이동보다는 인식의 변화가 중심이다.
 ④ (다)는 관찰과 고백이 나타나지만, (나)는 관조적이고 선언적인 어조가 강하며 정서의 직접적 표출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⑤ 두 작품 모두 존재의 본질을 다루지만, '상실된 가치에 대한 그리움'을 주된 정서로 보기 어렵다.

08 구절의 의미와 기능

정답: ⑤ ㉑: 일상의 허구성을 깨달은 화자가 새로운 본질적 삶을 개척하기 위해 내딛는 첫걸음을 의미한다.

[출제의도]

(다)의 결말 부분에 집중된 시어들의 문맥적 의미를 통해 화자의 상황 변화를 정밀하게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⑤ ㉑의 '시작했다'는 해골이라는 본질적 자아를 만지던 비밀상적 체험을 끝내고, 다시 '서류'와 '숫자'로 대변되는 일상적 삶으로 돌아왔음을 의미한다. 이를 '새로운 본질적 삶을 개척하는 첫걸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문의 흐름(성찰 후 일상 복귀)을 정반대로 이해한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해골의 '검은 눈'이 본질을 응시한다면, '눈동자'는 현실을 보는 도구이다.
 ② '서류'는 화자가 처한 사무적이고 일상적인 환경을 나타낸다.
 ③ '숫자'는 명확하고 계산적인 현실의 속성을 반영한다.
 ④ '초점을 맞추는' 행위는 흐트러졌던 일상의 질서를 다시 잡으려는 노력을 뜻한다.

09 인물의 심리 및 태도

정답: ②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느끼며 그 실체를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있다.

[출제의도]

화자가 '해골'이라는 대상을 만지고 응시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심리적 층위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② 화자는 해골을 '신기한 것'으로 감지하며 '아까워하며 조금씩 조금씩 더듬어' 나간다. 이는 낯선 본질적 자아에 대한 경외감과 이를 정밀하게 탐색하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잘 보여준다.

[오답 풀이]

- ① 화자는 해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워하며' 소중히 탐색한다.
 ③ 해골을 '튼튼한 폐허'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는 허무주의나 냉소적 수용과는 거리가 먼 본질에 대한 경탄에 가깝다.

- ④ '인위적인 표정'은 해골이 아니라 '얼굴'이 하는 행위이며, 화자는 이를 '얹디얹은' 것으로 인식하며 거리감을 둔다.
- ⑤ 해골의 시선은 화자의 본질적 자아가 자신을 보는 시선이지, 타인의 시선과는 무관하다.

10 주제의식 파악

정답: ②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현상 너머에 존재하는 불변의 본질을 응시해야 한다.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공통된 주제 의식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문장으로 정리한다.

[정답 풀이]

- ② (나)는 죽음과 소멸을 넘어선 '영원'을, (다)는 표정 짓는 얼굴 아래의 '해골(본질)'을 다룬다. 두 작품 모두 눈에 보이는 가변적 현상(죽음, 얼굴) 너머의 불변하는 본질(영원, 해골)을 응시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오답 풀이]

- ① '현재의 즐거움(Carpe Diem)'은 본질적 성찰을 강조하는 지문의 톤과 맞지 않는다.
- ③ '인간의 존엄성 수호'는 너무 거창한 일반론이며, 지문은 존재의 본질 규명에 집중한다.
- ④ '자연의 순수성 회복'은 (나)의 화석 소재에서 연상될 수 있으나 (다)와는 무관하며 작가의 주된 의도도 아니다.
- ⑤ '타인과의 소통'은 지문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이다.

11 내용의 사실적 이해

정답: ⑤ (다)의 화자는 해골을 더듬는 동안 일상의 서류 작업이 주는 피로를 완전히 잊고 환희를 느낀다.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적인 정보와 화자의 정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 풀이]

- ⑤ 화자가 해골을 더듬는 행위는 '신기한 것'을 감지한 탐색의 과정이지, '환희'를 느끼는 과정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또한 서류 작업의 피로는 성찰의 계기였을 뿐, 성찰 도중에 이를 '완전히 잊고 환희를 느꼈다'는 서술은 지문에 근거가 없다.

[오답 풀이]

- ① '가령 죽음이라든가... 초롱초롱 빛나던 눈'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스스로 불에 타서 소멸을 선택하는... 문혀라 화석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내 얼굴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음직한'이라는 구절에 명시되어 있다.
- ④ '얼굴의 기억이 지워진 뒤에도 한참이나 뻗어 있는 긴 시간을... 보고 있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작품의 유기적 이해

정답: ② (다)의 '해골'이 화자를 보고 있는 것은 시적 대상의 비현실적 변화를 통해 자아 성찰의 주객 전도를 형상화한 것이다.

[출제의도]

(가)에서 제시한 '비현실적 변화'와 '새로운 의미 부여'의 원리를 (다)의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통합적으로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② (다)에서 화자가 자신의 해골을 만지는 상황은 시적 대상(해골)이 비현실적 변화(살아있는 주체처럼 화자를 봄)를 겪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관찰자인 화자가 오히려 관찰 대상인 해골에 의해 응시당하는 '주객 전도'의 성찰 상황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오답 풀이]

- ① 새가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는 것은 영원한 비행(생명력)을 뜻하며, 화자의 고립감과 거리가 멀다.
- ③ (가)에서 대비되는 시어의 연결은 의미 부여를 위한 것이지만 현실 부정의 수단이 아니다.
- ④ (나)의 화석은 영원의 공간이며, (다)의 얼굴은 일상의 공간이다. 둘 다 과거 회상을 돕는 매개체로 보기 어렵다.
- ⑤ 문학적 재구성의 목적은 주제 구현이지, 단순한 공포나 경악 유발이 아니다.

13 시어의 함축적 의미

정답: ③ 생명력이 사라진 죽음의 형상이지만 그 안에 깃든 본질의 영구성을 상징한다.

[출제의도]

'튼튼한 폐허'라는 역설적 표현에 담긴 존재론적 함의를 정밀하게 파악한다.

[정답 풀이]

- ③ '폐허'는 생명이나 형체가 사라진 상태(죽음/해골)를 의미하지만, 그것이 '튼튼하다'는 것은 그 본질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지속됨(영구성)을 뜻한다. 이는 (나)의 '영원히 죽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역설이다.

[오답 풀이]

- ① '비극적 운명'은 튼튼하다는 수식어와 어울리지 않는다.
- ② '역사적 기록'은 해골의 존재론적 성격보다는 사회적 성격에 치우친 해석이다.
- ④ '정신력'이나 '외면의 초라함'은 지문에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자의적 해석이다.
- ⑤ '일상의 황폐함'은 '얼굴'의 속성일 수는 있으나 '해골'을 수식하는 '튼튼한 폐허'의 의미로는 부적절하다.

14 외부 사례 적용

정답: ④ (다)의 화자가 '눈동자를 되찾는' 행위와 (보기)의 화자가 '부속품을 느끼는' 행위는 모두 본질적 자아로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군.

[출제의도]

유사한 주제를 다룬 다른 텍스트와 비교하여 시어의 기능과 화자의 상황을 변별적으로 이해한다.

[정답 풀이]

- ④ (다)에서 '눈동자를 되찾는' 것은 성찰을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행위이며, <보기>에서 '부속품을 느끼는' 것은 자신이 기계화되었음을 자각하는 비극적 인식이다. 두 행위 모두 '본질적 자아로의 완전한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다)는 일상으로의 회귀이고, <보기>는 소외의 자각이다.

[오답 풀이]

- ① 두 작품 모두 '숫자'를 통해 메마른 일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② '얼굴'을 타인처럼 느끼거나 뒤집어쓴 것으로 표현한 것은 자아 소외의 형상화이다.
 ③ 해골은 본질적 긍정성을 내포하지만, 기계 부속품은 일상에 묶어두는 부정적 구속을 의미한다.
 ⑤ '딱딱한', '차가운', '침침하여' 등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드러낸다.

15 서술 및 표현 방식

정답: ①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가 도달한 인식의 확신을 강조하고 있다.

[출제의도]

두 작품의 문체적 특징과 그것이 주제 전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정답 풀이]

- ① (나)의 '죽음이 아니다', (다)의 '해골은 늘 너를 보고 있네' 등은 모두 단정적 어조를 통해 존재의 본질에 대한 화자의 확고한 인식을 드러낸다. 특히 결말 부분에서 이러한 어조는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부각한다.

[오답 풀이]

- ② 두 작품 모두 화자의 독백 중심이며 대화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다)에서 '생글거리고' 등 일부 표현이 있으나 '빈번하게'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다)는 시선의 이동보다는 촉각에서 시각으로의 감각 전이가 중심이며, (나)는 시선의 이동이 뚜렷하지 않다.
 ⑤ (나)의 '별'이나 '새'에 인격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전체적인 분위기도 애상적(슬픔)이기보다는 관조적이고 성찰적이다.